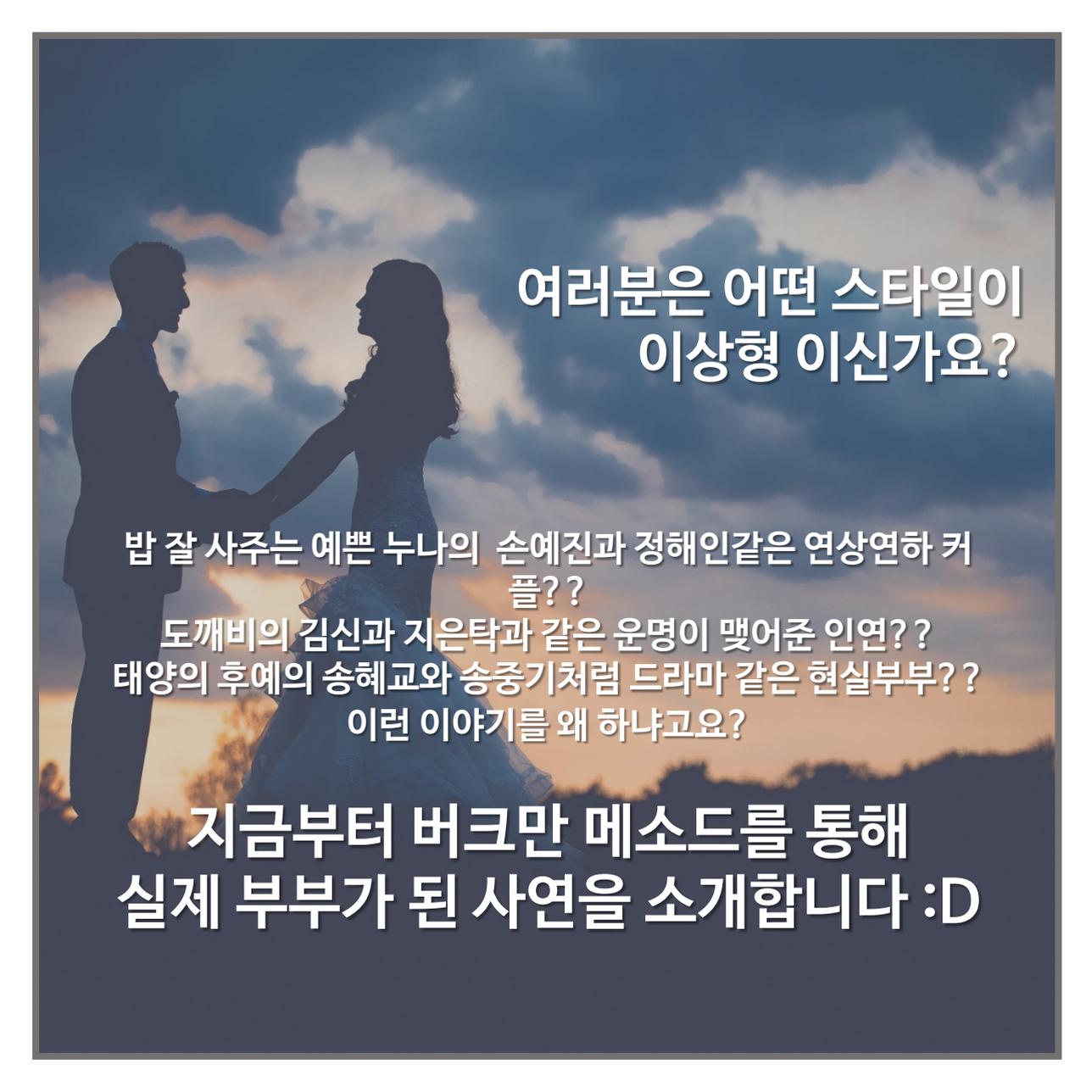




밥 잘 사주는 예쁜 아내를 만나는 방법

(feat. 버크만 메소드)



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
이상형 이신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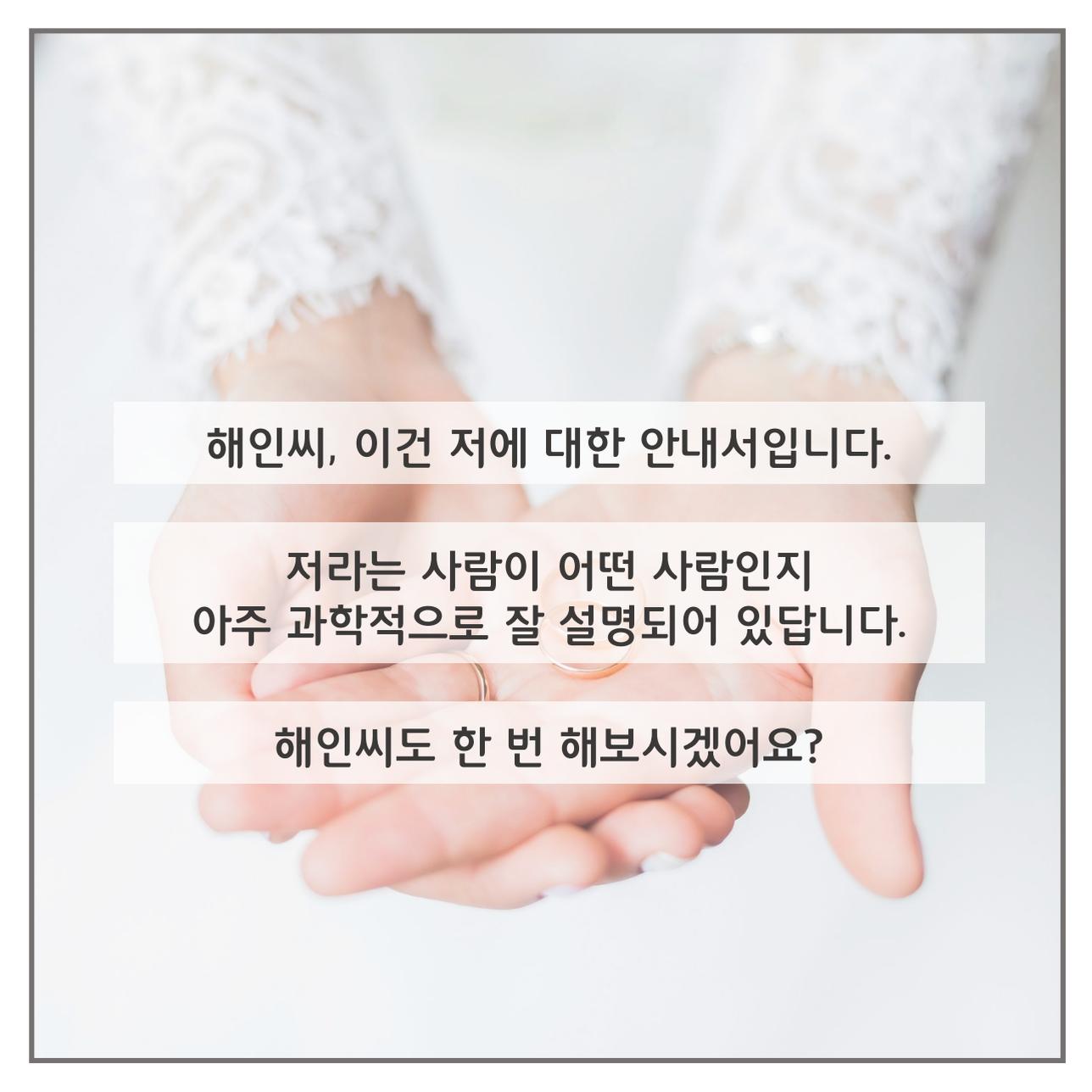
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손예진과 정해인같은 연상연하 커플??

도깨비의 김신과 지은탁과 같은 운명이 맺어준 인연??

태양의 후예의 송혜교와 송중기처럼 드라마 같은 현실부부??

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?

지금부터 버크만 메소드를 통해
실제 부부가 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:D



해인씨, 이걸 저에 대한 안내서입니다.

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
아주 과학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.

해인씨도 한 번 해보시겠어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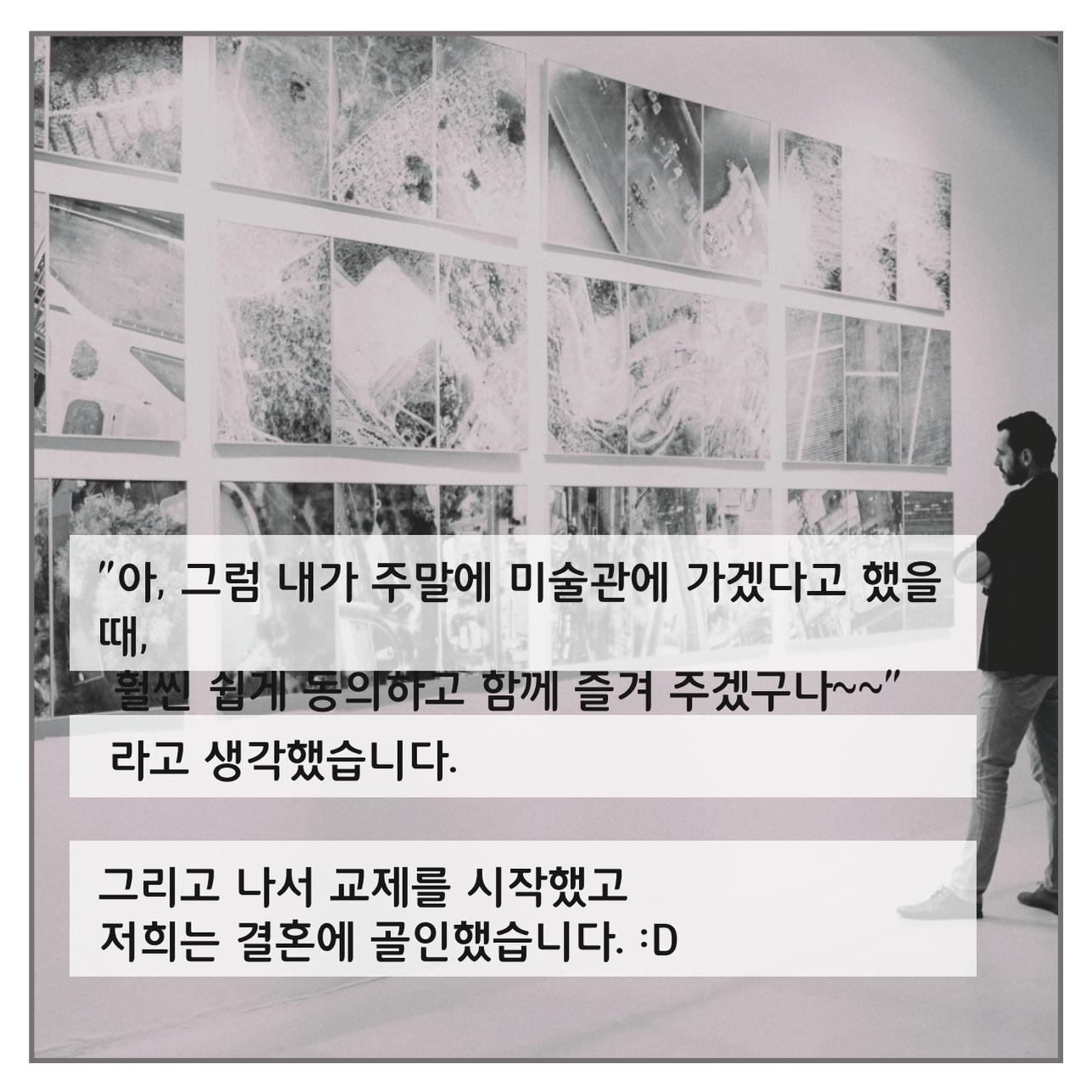


버크만 결과지를 받아보고

가장 먼저 살펴 본 것이 바로 흥미 부분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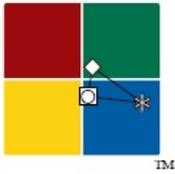
그런데 이 남자...

흥미가 저와 같은 블루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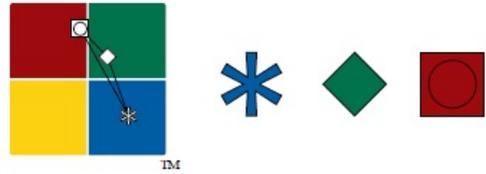


"아, 그럼 내가 주말에 미술관에 가겠다고 했을
때,
훨씬 쉽게 동의하고 함께 즐겨 주겠구나~~"
라고 생각했습니다.

그리고 나서 교제를 시작했고
저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. :D



손예진



정해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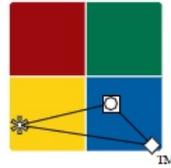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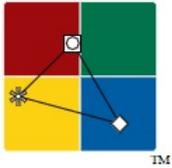


손예진 님과 정해인 님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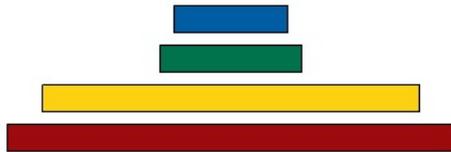
블루의 흥미 그외의 평소 행동의 공통점을 가지고 계시네요~
 때문에 두 분은 취미로 문화, 예술과 관련된 분야에 흥미가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,
 조화로운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.

조직지향점과 욕구/스트레스 부분은 블루와 레드로 반대되는 컬러이지만
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,
 소통을 잘 해주신다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부입니다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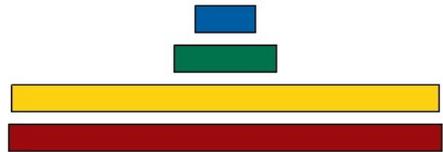
다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
 서로의 의견을 잘 수용해 주시면 환상의 커플이 되겠습니다!



지은탁



김신



또 다른 커플을 볼까요?

지은탁님과 김신님의 경우 흥미, 평소행동, 조직지향성
모두 같은 색의 공통점을 가지고 계시네요~

평소 취미도 잘 맞을 것이고, 서로에게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커플!
그런데... 싸울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이겠네요~

서로 다른 방식의 스트레스를 보이고, 원하는 방향이 달라서 부딪히는 면이 있으니
지은탁님은 상대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고,
김신님은 생각이 정리되면 서운했던 부분을 설명해주는 노력을 보인다면
하늘이 점지해준 것 같은 커플이 되겠네요~!!



happily ever after

그 동안 많은 행동진단, 성격진단을 받아보았지만

항상 2% 부족함을 느끼곤 했어요.

그런데 버크만을 만나면서

“이건 거의 점쟁이 수준의 진단이군!”

하며 감탄을 하곤 합니다.



나를 이해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
“타인을 이해하기 위함”
이라는 것을 버크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.